

『수신영약』에 관한 연구
- 제주 지역의 천주교와 토착종교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배 요 한

신일교회 담임목사, 철학과 신학

- I. 서 론
- II. 『수신영약』의 저술 배경과 구성
- III. 『수신영약』의 내용 - 천주교와 토착종교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 IV. 결 론

〈국문 초록〉

『수신영약』은 1900년에 김원영 신부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서, 초기 제주도 지역에서 천주교가 어떻게 전교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당시 종교적 상황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수신영약』이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유교를 원용하고 있고, 제주도의 토착 종교전통을 배격해야 할 것으로 비판하는 수신영약의 두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다 종교 상황 속에 처한 기독교의 바람직한 신학적·선교적 자세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수신영약』이 초기 제주도의 천주교 전교의 역사를 알려준다는 사료적 가치 이외에도, 종교다원적 상황에서 종교간 공존과 대화가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면교사로서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영약』은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는 앞부분에서는 당시 주류종교 전통이었던 유교를 원용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사실 학문적인 견지에서 엄정하게 살펴볼 때, 『수신영약』에서 다루고 있는 유교에 대한 내용은 예비 신자들을 교육하고, 천주교를 거부감 없이 소개하기 위한 의도 때문에 유교 자체에 대한 깊은 논의나 보유론적 관점이 그다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책의 후반부에는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풍습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풍습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매우 호전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나친 토착 종교에 대한 평가는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평가하고 분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오늘날 종교다원적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수신영약』과 그 이후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제주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수신영약』은 다른 종교를 소개함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보다는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다원적 상황에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존중과 이해 없는 호전적인 흑백논리적인 접근은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수신영약』이 제주민란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수신영약』에서 타종교와 그 풍습을 다루는 신학적 문제점은 『수신영약』이 가진 사료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구분하여 다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수신영약, 유교와 기독교, 한국적 신학, 토착종교와 기독교, 유교와 천주교

I. 서론*

『수신영약』(修身靈藥)은 1899년 5월부터 1901년 3월까지 제주에서의 전교활동을 담당했던 김원영(金元永, 아우구스티노, 1869-1936) 신부의 미간행 전교서로서, 제주도 초기 천주교 선교의 배경과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역사에서 제주도 지역의 천주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1886년의 조불수호조약(朝佛守護條約) 체결로 신앙의 자유가 확립된 사건이었다.¹⁾ 이후 제주도에 선교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교구장 뫼텔 주교는 1899년에 프랑스 사람 뫼이네(M. Peyner, 裴嘉祿) 신부와 김원영(金元永) 신부로 하여금 제주도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였다.²⁾ 뫼텔 주교가 제주 지역에 성직자를 파견할 것을 결정할 시기는 정확히 1899년의 연례 피정 직전인 4월 22일로 전해지며, 이 날이 바로 ‘제주 본당의 설립일’이 된다.³⁾ 당시 파송된 김원영 신부는 비록 신분은 뫼이네 신부의 보좌신부였으나 한국인 성직자였기에 외국인 신부보다 먼저 제주도의 습속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이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419).

- 1) 제주도에 언제부터 천주교 신자가 존재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최초의 접촉자가 김복수였다 는 기록, 황사영의 아내로 제주도에 귀양을 왔던 정난주에 대한 기록, 달레 신부나 뫼텔 신 부의 제주 초기 교회사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점에 대해서는 이 논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2)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97-98. 천주교에서는 복음을 소 개받지 못한 지역에 선교를 할 경우 ‘전교’(傳敎)라는 용어를, 개신교에서는 ‘선교’(宣敎)라 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개념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문맥에 따 라 두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또한 김 신부 자신도 ‘선교사’라는 용어를 『수신영약』에 서 사용하고 있다.
- 3)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 편,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 76. 『수신영약』의 필사본은 천주교 제주교구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료 들을 정리하던 중 1997년경 찾아내어 그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수신영약』의 한글 필사본은 14.2cm×25.8cm 크기의 한지에 쓰여 졌는데, 한글 필사본을 영인한 자료가 『교 회사 연구』(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제20집 (2003년), 249-291에 영인본 형태로 게재되 어 있다. 그리고 현대적인 문체와 한글로 바꾼 정리된 인쇄본은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 업 추진회 편,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 757-99에 실려 있 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한글 인쇄본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필사본과 대조하면서 글 을 썼으며,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의 현대 번 역본임을 밝힌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수신영약』으로 표시한 것은 『제주 천주교회 100년 사』에 수록된 것이다.

김원영 신부는 제주도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1900년 1월 18일에 『수신영약』(修身靈藥)의 집필을 마치게 된다.⁴⁾

『수신영약』은 총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주교를 변증하는 내용과 제주도 토착 종교의 풍습을 비판하는 것의 두 가지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수신영약』의 저술 배경과 그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여 제주도 초기 천주교 선교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⁶⁾ 이를 위해 필자가 『수신영약』을 다루는 본 논문의 부제를 ‘제주 지역의 천주교와 토착 종교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김 신부는 『수신영약』의 1-20절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변증하는데, 천주교 변증에 있어 유교의 경전과 위인들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⁷⁾ 그래서 이 부분은 필자가 본문에서 ‘천주교와 유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신영약』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21-26절에서 김 신부는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풍습들을 배격하기 위해 이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비판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천주교와 제주 토착 종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수신영약』 속에 드러난 초기 제주 교회사에 있어서의 천주교와 유교, 천주교와 토착종교의 만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이 사료가 전해주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수신영약』, 26절.

5) 책에 따라서 ‘절’이라고도 하고 ‘항’이라고도 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절’(節)로 분류하였고, ‘절’ 아래의 세부 단락을 ‘항’(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6) 그러나 사실 『수신영약』이 초기 전교와 제주 사회, 제주민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문제는 자료 자체가 미비하므로 논문의 후반부에서 간략히 다루었다.

7) 그런데 사실 20절은 천주교 교리, 특히 혼배 성사와 부부간의 정절과 사랑에 대한 천주교적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에서 남편들이 첩을 두는 풍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그래서 20절을 천주교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볼 것이지, 아니면 제주도의 풍습에 대한 비판으로 볼 것인지가 구분이 힘들다. 그래서 『수신영약』을 설명한 다양한 자료에도 서로 다양한 입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20절은 내용상으로 천주교의 혼배 성사를 언급한 19절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첩을 두는 풍습에 대한 비판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20절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천주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므로 천주교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II. 『수신영약』의 저술 배경과 구성

우선 『수신영약』의 저술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선교 초기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수신영약』의 저술 배경과 연관된 1899-1900년의 주요 사건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뫼텔 주교의 제주도 성직자 파견 결정: 1899년 4월 22일
-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의 입국: 1899년 5월 26일(5월 28일 첫 미사)
- 페네 신부의 첫 영세 집례: 1899년 6월 15일(신 아우구스티노와 바오로 형제)
- 페네 신부가 신병 치료차 제주도를 떠남: 1900년 2월⁸⁾
- 뫼텔 주교가 페네 신부를 대신해 라크루 신부를 제주에 파견함: 1900년 4월말
- 김원영 신부가 한논본당(현 서귀포성당의 전신)을 설립함: 1900년 6월 12일

제주도에 첫 성직자로 임명받은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는 우선 제주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는 일과, 예비 신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사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그런데 주임 신부였던 페네 신부는 제주도에 입도한 지 두 달 만에 병에 걸리게 되어 초기에 실제로 제주도의 각 지역을 선교하는 일은 주로 김원영 신부가 담당하였다.⁹⁾ 페네 신부는 열병 때문에 결국 라크루(M. Lacroux, 具瑪瑟) 신부로 교체 되는데, 페네 신부는 1899년 7월 열병 치료차 목포를 다녀왔고, 1900년에는 상경하였다.

『수신영약』의 집필자인 김원영 신부는 1869년 충남 공주의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882년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페낭(Penang) 신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1892년에 귀국하여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편입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¹⁰⁾ 사제로 서품되어 첫 임지로 제주도에 온 김원영 신부는 초기부터 선교

8) 이후 페네 신부는 4월에 서울에서 열린 사제 피정에 참석한 후에 전라도 수류(水流) 본당(김계군 금산면 화올리)으로 전임되었다.

9)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0.

10) 방상근, “『수신영약』 해제,” 『교회사 연구』 제20집 (2003), 237-39.

활동을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1900년 5월에 이르러 신자 수 20명과 예비 신자 30명을 얻게 되었고,¹¹⁾ 같은 해 6월에 한논(大畵, 현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으로 거처를 옮겨 전교 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1901년 5월에는 신자 수 137명과 예비신자 620명을 얻게 되었다.¹²⁾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제주도 선교의 초기에서부터 천주교 교세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종교적으로는 무엇보다 속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 원망심이 내재되어 있던 제주도민들에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 천주교의 평등사상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당시 정치의 부패와 문란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한 반대급부, 또한 조정에서 천주교 신부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하고 보호하라는 특명이 내려온 점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위와 같은 급격한 교세 성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그 결과로 1901년까지 제주도의 가톨릭 교세는 영세 242명, 예비자 700명이나 되었고, 이 중에서 영세 50명과 예비자 400명은 1901년 한 해 동안의 결실이였다.¹⁴⁾

그러면 이상과 같은 제주도 선교의 초기 상황에서 김원영 신부가 『수신영약』을 저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김원영 신부가 예비 신자들로 하여금 천주교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천주교 전교를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¹⁵⁾ 그래서 김 신부는 『수신영약』의 제 1-3절에서 각각 천주 공경의 필요성에 대한 서론적 언급(1절), 천주가 창조주이심(2절), 천주의 유일하심(3절) 등을 설명한 후에 사람들이 천주를 믿어야 하는 필요성(4절)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천주교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1-20절)하기도 하고, 또 제주도민들의 잘못된 종교적 풍습들을 비판(21-25절)하고 결론(26절)을 맺고 있다. 이상의 내

-
- 11) <본당별 교세 통계표>, 1899-1900년 및 1900-1901년, 김원영 신부,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0에서 재인용.
 - 12) <본당별 교세 통계표>, 1900-1901년, 김원영 신부,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1에서 재인용.
 - 13)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선교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17-18.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98-99에서 요약 및 재인용.
 - 14)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99.
 - 15)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4; 『서울교구 연보』, I, 259. 1899년 보고서,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77에서 재인용.

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영약의 구조

Main Structure of Susin yeongyak

-
- 머리말 : 천주교를 믿지 않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
 - 1-4절 : 천주교 교리의 기본적 특징과 천주교 신앙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언급
 - 5-20절 : 천주교의 주요 교리에 대한 해설(유교와 연관하여)
 - 21-25절 :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제주의 토착 종교의 풍습에 대한 비판
 - 26절 : 결론-영혼의 약(천주교)을 구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권고함
-

우선 『수신영약』을 펼치면 첫 번째 부분인 머리말은 김 신부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탄식은 진실된 종교인 천주교를 믿지 않는 데 대한 김 신부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데, 구구절절 “어찌,” “아깝다,” “슬프다,” “참혹하다,” “불쌍하다”는 등의 탄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거룩하시다! 우리 천주 예수 그리스도여! 너는 참 만민의 공변(보편)되신 구속자시로다. 어찌 이 지방인들 네 성혈공로 없으리오. 어찌 네 십자가로 이 지방인들 구속하지 아니하셨으리오. 아깝다! 우리 인생들아 ... 참혹하다. 우리 사람 된 본 성품을 이렇게도 몰라 짐승같을쏘냐 ... 슬프다! 만물을 내신 하느님을 받들어 흠송하는 자가 옛날만 못하도다 ... 어찌 이단 섬김에 골몰하는가. 이제 사람들아, 어찌하여 천주 성교의 근본은 파보지 않고, 저 바른 양심을 속이려 하는가 ... 가련하다 우리 인생, 자기의 종향(終向: 마지막 지향)을 모르면, 어찌 만물 중에 가장 귀하라. 밤낮을 불구하고 지악한 삼구전장(三仇戰場) 속에 있어, 안팎이 위태하니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그러나 이 글을 보고 행하면 능히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으리라.¹⁶⁾

위와 같은 안타까움은 『수신영약』의 전체 내용에도 깊이 배어 있다. 그리고 김원영 신부가 제목을 『수신영약』이라고 하게 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마지막 26절에 잘 나타난다. 그것은 ‘몸을 건강하게’(修身) 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선교사들에게 와서 육신의 약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육신보다 더 중요

16) 『수신영약』, 머리말. 인용문 중의 강조는 필자가 한 것임.

한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니 ‘영혼의 좋은 약’(靈藥)인 천주교를 신앙하라는 점을 그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절에서 서술하고 있다.

육신 병만을 다스리는 데는 옛적 백부장(百副將)보다 백 배 나으나, 이런 사람은 근본적인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란 첫째 영혼이 있고, 둘째로 육신이 있어, 상접(相接)하여 생기 있는 생명을 갖는 것이다. 이리므로 첫째로 영혼을 질곡에서 구하기 위해 이렇게 날마다 선교사를 찾아온다면, 그 가운데서 육신도 무병하여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하시리라... 육신의 좋은 약만 선교사 댁에서 구청(求請)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좋은 약을 얻어 듣기에 힘쓰시오. 그리고 성교 서적을 많이 읽고 개과 천선하여 말과 마음속에 그것을 가득 채워 날로 새롭게 정진한다면(日新又日新), 진시황의 불사약보다 역천 배나 유익하리라. 그렇게 한다면 육신도 영원히 불사불멸하여 일후(日後) 공심판 때 만복소에 가서 향유(享有)하리니, 여러 점잖은 이들은 이런 말을 귀 너머로 듣지 마소서.¹⁷⁾

김원영 신부는 이 『수신영약』을 그의 책 머리말 부분에서 “1900년 1월 5일 시작”한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1900년 1월 18일 집필을 마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¹⁸⁾ 이것은 사실 김원영 신부가 1899년 한가한 시간에 『수신영약』 저술을 마치고, 이를 필사한 기간이 1900년 1월 5일-18일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⁹⁾

이 책의 집필을 마친 같은 해 3월 4일에 김원영 신부는 이 책을 뫼텔 주교에게 보내어 감준과 간행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뫼텔 주교는 이를 김원영 신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 사실 전교 초기 단계에서 토착 종교의 풍습을 소개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것은 천주교 전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뫼텔 주교는 이 책을 다시 김 신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이것은 『수신영약』이 당시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뫼텔 주교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

17) 『수신영약』, 제26절.

18) 『수신영약』, 머리말; 제26절.

19)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6.

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뫼텔 주교가 이 책을 다시 김 신부에게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이유는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쉽게는 뫼텔 주교가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였거나 아니면 전교 활동에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나, 또는 간행을 차후에 염두에 두고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⁰⁾ 물론 위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뫼텔 주교가 김 신부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뫼텔 주교 스스로가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의 집필자인 김원영 신부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문제는 스쳐 지나갈 수 있으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김신부가 뫼텔 신부에게 출간을 염두에 두고 발송한 것이 김 신부가 가진 공격적 전교방법에 대한 가톨릭 측의 거부감 내지 경고의 의미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뫼텔 주교가 출간을 위해 원고를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김 신부의 『수신영약』이 제주 초기 전교 과정과 종교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토착종교에 대한 김 신부의 이해와 자세가 매우 피상적이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김원영 신부가 제주도 전교 초기에 보여준 놀랄만한 전교의 업적은 사실 천주교인이 아닌 평범한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비쳐졌다고 볼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수신영약』의 서문에 보면 김 신부의 제주도 땅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매우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 김 신부는 사제로 서품 받은 지 두 달 여 만에 초임지로 제주도에 온 것이라 전교의 사명감이 매우 충만한 상태로 짐작할 수 있는데,²¹⁾ 이러한 그의 사명감과 전교의 열정이 앞서 지적한 대로 『수신영약』의 머리말에서 나타나듯이 제주도 땅의 주민들이 천주교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초임 신부로서의 젊음과 열정, 사명감에 투철한 김 신부의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은 『수신영약』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수신영약』 곳곳에는 관리들에 대한 김 신부의 강한 불신과 강경한 자세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사제의 영향은 이후 도내 천주교인들과 제주도 관리들간의 마찰

20) 위의 책.

21) “내가 천주님과 성모님의 홍은(洪恩)을 입어 기해년(1899년) 2월 7일에 신부로 서품된 후 4월 17일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수신영약』, 제25절. 참고로 위의 날짜는 음력임.

을 불러 오기도 하였다.²²⁾ 또한 본 글의 뒷부분에서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김 신부가 『수신영약』에서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여러 풍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박멸’의 대상으로만 몰아가는 점도 천주교인과 비천주교인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킨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수신영약』을 통해 보이는 김 신부의 입장을 평가하자면, 그의 전교의 열정이 천주교의 전교에 도움이 된 면도 분명히 있으나, 천주교인과 비천주교인, 천주교 신앙과 토착 종교의 풍습과의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이 책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서 필자는 뮌텔 주교가 『수신영약』을 다시 김 신부에게 돌려보내어 간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뮌텔 주교가 김 신부의 전교 방법과 그의 공격적인 전교 입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김 신부가 『수신영약』을 집필한 이듬해인 1901년에 교회 당국이 김 신부에 대해서 “문책과 좌천”으로 판단할 만한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즉 교회 당국은 1901년의 제주민란 이후 김 신부가 제주도로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²⁴⁾ 대신 김 신부로 하여금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목포에서 데에(Deshayes, 曹有道) 신부의 사목활동을 돕게 하였다.²⁵⁾ 그 이후에도 김 신부에게는 제주도에 입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 신부는 경기도 양감, 황해도 봉산군 은파, 경지도 해주 본당, 경향신

22) 예를 들어 『수신영약』에서 김신부는 당시 부자와 관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귀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 없고, 부요하면 주색잡기 아니하는 이 없고, 부자 되면 세무에 골몰하지 않는 자 도무지 없음이라. 양심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어찌 거룩한 도리를 배우리오... 나는 호의호식과 주색잡기로 세월 보내겠네 하고, 광명한 태양같은 천주 성교 준행하기 싫어 눈을 감는다. 시방 부귀한 자 이려하니 어찌 이런 사람이 참 귀인이리오” 『수신영약』, 11절. 위의 인용 구절에서 “부자 되면 세무에 골몰하는 자” 또는 “시방 부귀한 자”라는 표현은 당시 부자들과 관리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1절에도 “내가 우리 대한 여러 도움과 타국 항포(港浦)를 유람하여 보아도 제주와 같이 주색잡기 많음을 못 보았소. 이 절도(絶島)도 대만에 속해 있으니, 예의동방이란 좋은 칭호를 듣기에 합당하도록 수신수심(修身修心)하여 봅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수신영약』, 21절.

23) 박일영, “구한말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 -수신영약(1900)을 중심으로-.” 기사 전문은 『평화신문』, 제737호 (2003년 8월 24일) 참조.

24) 제주민란은 학자의 입장에 따라 ‘신축교란,’ ‘신축교안,’ ‘이재수의 난,’ ‘신축민요’ 등으로도 불린다. 필자는 이 글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제주민란’으로 사용하였다.

25) 방상근, “『수신영약』 해제,” 239.

문의 편집 실무자를 거쳐 1917년 9월에 경기도 갖등이 본당(현 수원교구 왕림), 황해도 신계본당 등으로 계속 전보되었고 결국 1936년 10월 7일에 건강이 악화되어 주교관에서 휴양하던 중 선종하여 용산성당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상의 일련의 상황을 해석해 볼 때, 김 신부 본인이 제주도에 돌아가기를 원했으나 끝내 1901년 제주민란 이후에 입도하지 못한 것은 당시 『수신영약』과 그 집필자인 김 신부에 대해서 천주교 측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Ⅲ. 『수신영약』의 내용-천주교와 토착종교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1. 천주교와 유교의 만남

『수신영약』에는 그 어느 종교적 전통 보다도 유교적인 내용, 즉 유교 경전의 인용과 공자, 맹자 등의 사상가들에 대한 인용이 독보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필자는 그 이유가 대략 세 가지 정도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로, 일단 『수신영약』을 저술한 1900년이라는 시대 자체가 14세기 이래 조선 왕조 오백 년 동안 중요한 종교적, 사상적 전통으로 내려온 유교적 영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도 지역을 전교한다고 했을 때,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하여 비판, 비교 또는 수용이 가능한 당시의 거의 유일한 종교적 전통이 유교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역사적으로 유교의 지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유교의 천관, 인간관, 수양론 등이 천주교 교리의 설명에 유용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불교나 무교 또는 민간 종교 풍습은 교리적으로 천주교와 비견할 만한 체계를 가지지 못한 채 민간의 종교적 풍습으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조선 후기 천주교가 수용되면서부터 이미 천주교의 교리를 유교와 연관하여 변증한 많은 문헌들이 있어서 김 신부가 『수신영약』을 집필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천주교와 유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신영약』을 분석해 보면 『수신영약』의 뒷부분에서 김 신부가 제주도 지역의 나름대로 고유한 토착 종교의 풍습들을 다루고 있듯이 유교 이해에

있어서도 유교 자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른바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유교적 내용이나 성격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말은 『수신영약』에 유교적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적’ 유교의 특성이 아니라 유교의 일반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등 당대 매우 뛰어난 유학자들이 유배되어 왔고, 그들이 제주도민들과 조우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치거나 한 경우는 있으나, 그 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제주도의 특성을 가진 유학’ 또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교적 성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다고 보아야 한다.²⁶⁾ 필자가 제주도에 유배를 온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을 시대별로, 사상적 특징별로, 제주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이른바 독특한 제주 유학의 특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²⁷⁾ 그 이유는 제주도의 유학적 전통은 유학자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와서 경전과 사상의 내용을 전래하여 형성된 것인데 유배자 자체의 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고, 유배의 시기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학자들도 많았으며, 유배를 온 학자들이 특정 유학자군(주자학자, 양명학자, 실학자)에 속한 인물들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제주도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 또는 ‘유학적 저서’라고 할 만한 인물이나 작품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²⁸⁾

26) 조선조 대표적 지식인 4,000여 명 가운데 유배인은 대략 700여 명이며, 이들 중 전라남도 에 유배된 이들은 178명으로 그들 가운데 49명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지식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조선조 5백 년 동안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의 수는 총 수는 200여 명이었다. 이들은 광해군을 비롯한 왕족과 외척, 문무 양반, 학자, 승려, 환관, 도적, 범인 등이 있었는데 그들 중 유학자들의 유배의 경위와 제주도 유배지에서의 활동 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은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도 유배인 열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제주 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27) 이는 위의 각주 26번의 두 책을 참고한 필자의 결론이다.

28) 물론, 필자는 제주도의 유학적 수준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조선유학자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올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학자로서의 기능은 유배지에서 가능하였기에 학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제주도에서 발휘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정희 선생이 추사체를 완성한 것이 제주도 유배 기간이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 논문에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상적 측면에서 제주 유교의 고유성 내지는 독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서, 『수신영약』 속에 나타나는 유교 경전이나 용어, 사상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신영약』에 나타나는 유교적 표현²⁹⁾

Some Confucian Expressions in the Susin yeongyak

절	표현	표현의 문맥	출처 및 간략한 유교적 분석
머리말	“지령불매(至靈不昧)한 사람이로다”	영혼의 속성으로 언급함	유교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허령불매(虛靈不昧)의 유사한 표현
1	“공맹같은 양반도..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용서 받을 곳이 없다’ 하시고”	하늘로 주님을 삼은 유교식의 표현으로 언급함	『論語』, 「八佾篇」, 十三章
2	“천자문에도 ‘우주홍황(宇宙洪荒)이요 하이일체(遐邇壹體)’라고 하니”	천지의 넓음과 만국인의 하나됨에 대한 표현	『千字文』
3	“공자도... ‘하늘에 두 해 없고 백성에게 두 임금 없다’ 고 하였다”	임금이 한 분이듯 천지의 주재자도 한 분임을 표현	孔子를 들어 인용함
4	인성의 착함이 아래로 흘러가는 물과 같다	육신이 상위에 있는 영혼의 명을 받아 거스름이 없어야 함	“天無二日 不事二君”
	“사람이 천주께로조차 오는고로 천주의 모상이 있어 元亨利貞과 仁義禮智.. 三綱五常.. 非禮非義”		유교 인성론의 고유한 표현들을 들어 인간의 존엄함을 표현함
5	儒道는 孔孟을 원조로 삼음	유교가 중국에서 왔으나 신봉하듯 천주교도 서교(西教)라 하여 반대해서는 안됨	유교 뿐 아니라 불교도 천축국에서 온 것임을 함께 근거로 들어 주장함
6	상제	천주에 대한 다른 표현	『孟子』 인용
	“부모를 섬김으로써 모자람이 없게 하라”	대부모이신 천주 공경의 필요성	
7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조상 공경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朱子, 曾子, 堯舜禹湯 등을 언급함)	유교 제사의 보분추원(報本追遠)을 인정하면서도 제사상을 차려 놓는 것을 비판함

29) 필자가 만든 이 표는 사실 『수신영약』에 나온 유교적 표현의 전체는 아니다. ‘상제’ 등의 단어는 본문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유교의 관용적인 표현이 드러난다. 다만 이 표에서는 각 절에서 두드러지는 표현들만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8	천주를 상제라고 부름	본문의 많은 곳에서 등장함	원시유가와 성경의 유사함의 근거로 자주 인용됨
9	천지개벽	천주교 역사의 장구함의 근거로 표현함	'창조'에 비해 '개벽'이 보다 유교적 표현임
10	구구(矩規), 수신(修身), 상제(上帝), 상주(上主)	천주교의 올바른 도리를 믿어야 천당에 감을 설명하면서 표현한 용어들임	구구(矩規)는 올바른 규범을 뜻하는 유교적 용어이며 다른 세 용어도 유교적 용어임
11	막여작(莫如爵), 막여치(莫如齒), 막여덕(莫如德) 대덕군자는... “마치 깊은 못에 들어간 듯 하고 얽은 얼음 위에 섬 같이 하여”	천주 유학자들의 훌륭한 삶의 태도를 표현한 용어들	「明心寶鑑」, 「遵禮篇」에 나오는 曾子의 말을 인용함
	걸주(傑紂), 여유(厲幽)		중국 역사에서 지위는 높으나 덕을 쌓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들
12	수신(修身), 오륜(五倫), 군자(君子)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며 그 가르침이 훌륭한 이유에 대한 표현	유교 인성론과 수양론의 대표적인 용어들
13	“셋이서 동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는 고로 그 선을 택하여 이에 따르노라”	천주교도가 가르침이 훌륭하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의 근거로 인용함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論語」, 「述而篇」, 二十一章
	“하필 이로운(利)을 이르리오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따름”		“何必曰利 亦有仁義,” 「孟子」, 「梁惠王章句 上」, 一
16	“나날이 더욱 새롭게 발전하게 되면”	천주교도는 7일 만에 안식일을 지키나 늘 열심히 수신하기를 힘쓰는 자들임을 표현함	「大學」, 「傳 二章」
17	“효제충신(孝悌忠信)”	천주교가 無君無父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적인 종교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함	유교 윤리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사람의 악을 듣거든 가시를 쬐어진 것 같이 괴로워하라”		“聞人之惡 如負芒刺,” 「詩經」, 「正己篇」, 三十三
	“입을 지키기를 병과 같이 하시오”		“守口如瓶,” 朱子「敬齋箴」
18	공자 가로되 “色을 경계하라”	천주교가 통화색(通貨色) 한다는 오해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언급됨	“孔子曰 君子有三戒... 戒之色,” 「論語」, 「季氏篇」, 七章
19	“夫婦는 五倫의 으뜸이 되는도다”	천주교에서도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을 중시한다는 데 대한 인용	五倫 중의 夫婦有別과 연관됨

20	“조강지처를 집에서 내쫓을 수 없다”	본처에게 자식이 없어도 내어 쫓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인용	“糟糠之妻不下堂,” 『後漢書』, 『宋弘傳』
21	“효제충신(孝悌忠信) 하고 지의용절(智義勇節)을 가진 사람”	사람이 주색잡기가 아닌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	유교에서 삶의 바른 태도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
23	“풍수는 夏·商·周 삼대 때에는 전혀 없었는데...”	풍수나 백일 등에 집착하는 잘못된 제주 사람들의 풍속을 비판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 인용함	하·상·주(夏商周) 삼대는 유교의 태평성대를 일컫는 고유한 표현
	“帝堯는 장수하시고, 舜.. 文王.. 周公.. 仲尼.. 子貢은...”		다양한 유교의 성인들도 장수와 단명을 하였으므로 풍수 등의 이론에 집착하여 장수를 피하는 것이 잘못임을 비판함
25	“중용에도 말하기를 ‘上天之載는 형체·소리·냄새가 없다’	유교 경전의 예를 들어 심방국의 잘못을 비판함	“上天之載, 無聲無臭,” 『中庸』, 『三十六章』
	“공자의 말이 ‘부귀는 재천이라’ 하셨다”		“富貴在天,” 『論語』, 『顏淵篇』 五章
26	“날로 새롭게 정진한다면”	천주교를 믿고 더욱 날마다 정진하기를 바라는 표현	“日新又日新,” 『大學』, 『傳 二章』

2) 『수신영약』의 보유론적 관점과 내용에 대한 평가

위의 표에 나타난 『수신영약』의 유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신영약』에는 전통 종교 중에서 유교의 비중이 다른 불교, 도교, 무교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외에 불교, 도교, 무교 등은 탄압 내지 하층민의 종교로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 종교가 가진 심오한 가르침이 제대로 민간, 특히 지식층에 전승되기 어려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김 신부 입장에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거나 변증하는 데 있어서 굳이 유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빗대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김 신부의 유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김 신부의 입장을 ‘인유론적’(引儒論的) 또는 ‘보유론적’(補儒論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인유론’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유교의 내용을 ‘인용(引)하여’ 천주교 신앙을 설명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 ‘인유

론'(引儒論)이란 “공맹(孔孟)의 원시 유학에서 자주 인용되어 온 경전 내용으로 천주의 존재와 속성을 설명”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³⁰⁾ ‘보유론’(補儒論)이란 천주교 신앙이 유교의 부족한 점을 보충(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나 초기에 쓰여진 천주교 학자들의 작품들(이벽의 『성교요지』, 정약종의 『주교요지』 등)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유론적 입장에서 있다. 그러므로 ‘인유론적’(引儒論的)이라는 표현은 표현의 ‘근거’를 유교의 경전 등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했다는 면을 보다 강조한 용어이고, ‘보유론적’(補儒論的)이라는 표현은 천주교의 교리적 내용(천주의 속성, 인간의 도덕성 등)을 유교 사상 자체도 함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천주교가 보다 우월한 종교임을 설명해 보이고자 하는 내용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문적인 관점에서 『수신영약』에 나타난 김 신부의 보유론적 입장은 조선후기에 쓰여진 이벽의 『성교요지』나 정약종의 『주교요지』 등의 천주교 초기 호교론서들에 비해서 결코 이론적으로는 더 깊고 심오한 논리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의 표에서 보듯이 『수신영약』에서 언급하는 유교 경전이나 그 내용은 사상적으로 그 이전의 호교론서에 비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깊이 있는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적 형식을 빌어서 천주교의 주요한 교리를 매우 함축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한 이벽의 『성교요지』나, 일반 서민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한글로 쉽게 풀어 썼으나 삼위일체나 기독교, 신 존재 증명의 논리까지 깊이 있게 다룬 정약종의 『주교요지』, 기해박해의 고난의 시기에 천주교 박해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정하상의 「상재상서」 등의 초기 호교론서에서 볼 수 있는 유교 경전 인용과 비판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수신영약』은 같은 호교론서라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정도의 깊이 있는 저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³¹⁾ 왜냐하면 『수신영약』에는 사서 등의 기본적인 경전 외에 유교의 다양한 경전에 대한 인용이나 주자학적 사유구조의 특성과 천

30)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7.

31) 이 논문에서는 『수신영약』를 다른 보유론적 문서와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는 또 다른 한 편의 논문이나 저작으로 다루어야 할 폭넓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수신영약』에 나타난 유교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보유론적 문서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성교요지」, 「주교요지」, 「상재상서」 등이 될 것으로 본다. 위의 자료에 대한 유교적 또는 보유론적 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요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1 (2011), 393-415; 배요한, “정약종의 『주교요지』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4 (2012), 443-68; 배요한, “정하상의 「상재상서」에 관한 연구 - 헌종대 「척사윤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6-1 (2014), 211-39 참조.

주교를 대비하거나, 또는 선진유학(先秦儒學) 또는 원시유학(原始儒學)의 경전을 인용하면서 주자학을 비판하고 천주교를 변증하는 등의 논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특정한 호교론서에서 담아내고 있는 보유론적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유교 경전이나 내용 인용이 과연 충분한 문맥과 경전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천주교와 유교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천주교의 우위성을 설파하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수신영약』은 후자를 지향하는 목적성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유교 자체에 대한 깊은 논의나 유교와 천주교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천주교의 우위성을 설파하는 논리 자체가 얼마나 엄정한가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전대의 호교론서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물론, ‘호교론적 깊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수신영약』을 일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 호교론서의 저자인 이벽, 정약중, 정하상 등이 당시 매우 뛰어난 유학자였던 데 비하여 김 신부는 유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이벽의 『성교요지』나 정약중의 『주교요지』, 정하상의 『상재상서』가 천주교 교리를 양반들에게 소개(이벽의 『성교요지』)하거나 일반 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 책(정약중의 『주교요지』), 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에 대하여 그 탄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정하상의 『상재상서』)이므로 각 저술이 지향하는 독자층, 시대적 배경, 저술의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저술이 가장 보유론적으로 뛰어나냐?’를 한 줄로 세워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수신영약』은 그 내용적인 깊이나 사유의 틀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서 인용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신영약』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천주교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미신적인 습속을 타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유교를 인용하여 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의도에 충실한 책이며 그래서 보유론적 관점에서 치밀하고 깊은 논리를 담아낸 저술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입장이라고 본다. 사실 유교를 언급하면서 보유론적 입장을 가지고 천주교 교리를 설명했다고 해서 유교를 왜곡하거나 유교의 본질적인 면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수신영약』에는 그러한 부분이 종종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4절에서 김 신부는 “사람이 무엇이냐”는 소주제를 다루면서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告子 章句上」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혼은 마치 육신의 상전(上典) 같아 그의 노복이라 할 수 있는 하위의 육신을 다스린다. 육신은 상위에 있는 영혼의 명을 받아 조금도 거스름이 없어야 하므로, 맹자(孟子)도 말하기를 “인성의 착함이 아래로 흘러가는 물과 같다” 하였다. … 우리 원조 아담이 천주께 죄를 지어 상위에 있는 영성이 사욕 편정(私慾偏情)에 매이고, 삼구(三仇)의 침노함을 항상 받아, 선을 행하기 어려운 물이 여물을 거스름 같고 악을 행하기 쉽기는 무거운 돌이 아래로 빨리 떨어져 내려감과 같으니 얼마나 불쌍한가.³²⁾

위의 인용구에서 맹자는 고자(告子)의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반박하는 근거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듯이, 본성이 선한 것이 원래의 모습임을 들어 고자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신부는 맹자와 고자의 논변을 영혼-육신의 구조와 결부시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위의 『孟子』 인용문을 가지고 영혼과 육신의 관계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육신이 영혼의 부림을 받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과,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더구나 상위에 있는 영성이 욕정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유교의 성정론(性情論)은 그 관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천주교의 영혼과 유교(맹자)의 본성은 서로 비교가 어려운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영혼은 인간의 본질적 구조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하며, 유교의 본성론은 존재론적이면서 동시에 가치론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적인 언급이 전혀 없이 단지 상위-하위 개념을 설정하고 유교의 본성론과 천주교의 영혼론을 결부시키는 논리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³⁾

위의 인용구 외에도 김 신부의 유교 이해나 유교 경전에 대한 인용은 ‘그렇게

32) 『수신영약』, 제4절.

33) 만약에 김신부가 맹자식의 본성론과 연관해서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영혼’-‘육신’의 도식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죄’의 도식으로 풀어야 더 적절하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요한, “유교적 인간 이해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인간의 본질적 가능성에 대한 선교적 논리 계발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25 (2010), 199-233 참조.

도 볼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견강부회(牽強附會)격으로 유교와 천주교를 엮으려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는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이는 사실 김 신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시가 이미 20세기에 접어드는 시기였으므로 유교의 본질적 사상이 이미 상당 부분 왜곡된 시대라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면도 있고, 또한 그 결과로 일반적으로 김 신부나 민간에서 이해하는 유교의 수준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2. 천주교와 제주 토착종교의 만남

『수신영약』에서 제주도의 토착 종교와 그 풍습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한 다음인 제20절에서 25절에 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신영약』에 나타나는 토착종교의 풍습들에 대한 비판³⁴⁾

Some Critique of Aboriginality Religious Customs in *Susin yeongyak*

절	토착종교의 풍습	비판의 요지 및 천주교 신앙의 촉구
20	침을 두는 풍습 ³⁴⁾	처첩간에 서로 싸움, 금수만도 못한 짓이다 → 천주교는 정부정처(正夫正妻)의 도리와 정절을 강조한다
21	주색잡기를 하는 풍습	주(酒)는 건강에 해로우며, 술주정을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며, 호색(好色)은 정도(正道)가 아닌 사욕(邪慾)을 따르는 잘못된 행동이다
22	뱀을 신으로 공경하는 풍습	초목금수는 만물의 소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공공경하는 것은 잘못된 풍습이다
23	풍수, 택일과 관상 보는 풍습	이들 풍습은 원래 유교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었음을 조목조목 비판함
24	무당이 굿으로 병자를 낫게 하려는 풍습	이 풍습이 맞다면 무당은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간혹 낫게 되더라도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4) 각주 7번에서 밝힌 대로 20절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나 침을 두는 데 대한 비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0절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참고로 김 신부는 21절에서도 침을 두는 풍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25	여러 가지 심방굿으로 각 신을 숭상하는 매우 다양한 풍습들	제주의 풍습인 거리제, 신당, 명감, 포제, 천제, 용신제, 칠성제, 각종 제사, 무당 굿하는 풍습 등등은 모두 허황되고 잘못된 것이다
----	----------------------------------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신부는 제주도의 미신적 풍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에서는 무려 23개 항목으로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의 토착종교의 풍습들을 하나 하나 예시하면서 그 내용과 잘못된 점들을 반박하고 있다.³⁵⁾

2) 『수신영약』의 제주 토착 종교 이해에 대한 평가

우선 『수신영약』에 나타난 토착 종교에 대한 김 신부의 비판을 언급하기 전에, 제주도 초기의 전교 상황에서 토착 신앙의 형태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수신영약』의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어느 문화에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과 고유한 풍습, 종교적 특성,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수신영약』이 가지는 제주도 초기 선교 상황에 대한 정보와 토착 종교의 풍습을 알려주는 사료적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수신영약』의 사료적 가치와는 별개로 과연 『수신영약』에서 다루는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풍습에 대한 이해와 그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일단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김 신부의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풍습에 대한 입장은 ‘토착 종교의 풍습은 배격되어 마땅한 잘못된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이다. 그래서인지 김 신부는 천주교를 제외한 전통적 종교들(불교, 유교, 열교[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들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자신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제주도의 토착 종교에 대해서는 ‘심

35) 25장에서 비판하는 제주의 여러 심방굿은 정월의 거리제, 신당에서 재앙을 면하려 비는 풍습, 명감(거친 땅에 초막을 짓고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수확을 달라고 산신에게 비는 행위), 포제(酬祭)와 천제(天祭), 절터였던 곳에서 굿하기, 용신제(龍神祭), 칠성제(七星祭), 전방(廩房) 귀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제사 지내기, 집 지은 후에 비 오면 부자 된다는 믿음, 집이 소실(燒失)되면 무당 불러 굿하기, 집을 인 다음에 병에 물을 넣거나 지붕에 사내가 오줌을 누는 풍습, 2월 21일에 영등할망이 들어온 날이라 하여 굿하기, 푯할망을 위해 당을 지어 섬기기, 마주단(馬祖壇)에서 제사하기, 소렴당(어승생에 있던 신당), 배 고사 지내기, 뭍이 비린 것에 대한 세목(細目)을 정하여 금기시 하는 풍습 등이다.

방긋' 과 '각 신을 숭상'하는 토착종교를 '이단'(異端) 또는 '사도'(邪道)라고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³⁶⁾ 물론, 위의 표에 나타난 풍습 중에서 첨을 두는 풍습(20절)이나 주색잡기에 빠진 모습(21절)은 사실 종교적인 풍습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원영 신부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조차도 종교적 차원에서 천주교와 비교하여 서술하면서 미신적 습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점도 또한 김 신부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마땅히 배격해야 할 종교적 습속으로 규정할 정도로 제주도 토착적 풍습을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김 신부에게는 『수신영약』 전체에서 다루는 제주도 토착종교의 풍습 가운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복음과 함께 수용되어야 할 가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즉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풍습은 나쁘고 배격되어야 하며, 천주교 복음이야말로 위대한 것이다'라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도식이 김 신부에게 전제되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풍습은 유교나 불교보다도 더 하등한 미신적 습속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 때문인지 페네 신부의 후임으로 부임한 라크루 신부조차도 김 신부에 대해서 "김원영 신부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과 장소를 잘못 택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김원영 신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³⁷⁾

천주교만이 위대한 종교요, 제주도의 토착 종교와 그 풍습에 대한 비난하는 입장은 실제로 초기 천주교 신자들 중에 천주교에 반대하는 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공공연히 신당을 파괴하거나 마을의 신수(神樹)를 베기도 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³⁸⁾ 또한 신부들은 신자 중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하기도 하고,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³⁹⁾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천주교인이 아닌 제주도민들, 특히 토착 종교와 그 풍습에 깊이 물든 도민들에게는 심한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제주도 초기 천주교 역사에서 배타적 우월감을 가지게 된 천주교도들이 비신자인 일반 제주도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사형(私刑)

36) 유요한,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개종주의(Proselytism) 비교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제22호 (2012), 20. 『수신영약』 제25절 이단(1항목), 사도(5항목).

37) 방상근, "『수신영약』 해제," 239.

38) 유요한,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18.

39) 위의 글.

을 실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나 천주교 신자들이 세금을 징수한 문제⁴⁰⁾ 등은 사실 『수신영약』에 나타난 김 신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제주도 초기 천주교의 역사에서 『수신영약』이 저술된 이듬해인 1901년에 제주민란이 일어난 점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제주민란은 1895년부터 10년간 전국적으로 천주교도와 비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300여 건의 갈등과 대립(천주교의 용어로는 ‘教案’ 즉 종교적 충돌)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제주민란의 첫 시발지가 김 신부가 1900년 6월에 한눈 본당을 창설하여 담당한 대정군·정의군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민란이 처음으로 발발한 지역이 바로 김 신부의 담당지역인 대정군이었고, 또 다른 김 신부의 담당지역인 정의군에서 많은 교폐(敎弊)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⁴¹⁾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본다면 김 신부의 제주 토착 종교와 그 풍습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이 사실 제주민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론 오늘날까지 『수신영약』이 당시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수신영약』이 전교서였다는 점과 당시 교세가 급증하던 상황에서 김 신부를 보좌하던 회장이나 지도급 신자 정도는 전교 활동과 신자 교육을 위해 이 책을 필사해 보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⁴²⁾ 또한 김 신부 자신도 강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⁴³⁾ 『수신영약』과 제주민란의 관계에 대해서 천주교의 방상근 신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자들이 ‘평민을 雜技罪人이라 하여 잡아들인다’ 거나, ‘굿을 방해한다’ 거나, ‘포제의 제단과 신당을 파괴’하는 등 『수신영약』의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책(『수신영약』-필자 주)의 영향을 간접적이거나 몇 볼 수 있게 한다.⁴⁴⁾

40) 박일영, “구한말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 『평화신문』, 제737호 (2003. 8. 24 참조).

41) 방상근, “『수신영약』 해제,” 238-39.

42) 위의 글, 244.

43) 위의 글.

44) 위의 글, 244-45.

위의 인용문대로 제주민란의 발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천주교와 천주교인에 대한 적대감이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날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수신영약』이 가진 토착화된 종교적 풍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는 심각하게 비판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교의 열정이 강하고 뜨겁다고 해서 전통 문화 자체를 무조건 배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용, 적용, 적응할 수 있는 것과 비판, 배격할 토착 종교와 그 풍습을 구분했어야 한다는 역사적 평가가 이 지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선교의 열정과 적극성은 단기간에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 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토착적인 종교적 풍습을 파악하여 수용점과 배격할 점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IV. 결 론

『수신영약』은 제주도 초기 천주교 선교의 상황과 당시 종교적 풍습을 알려주는 귀한 사료이다. 『수신영약』은 김월영 신부가 초기 제주도 지역의 전교를 감당하면서 예비신자들을 교육하고 제주도의 토착 종교의 잘못된 종교적 풍습들을 비판하면서 천주교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쓴 간략하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종교적 열정이 강한 문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도 다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수신영약』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일단 저서 전반에 깔려있으면서 중반부까지는 천주교 교리를 보유론적 관점을 다소 사용하면서 저술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론적 관점을 가진 초기의 다른 변증문헌들(『성교요지』, 『주교요지』, 『상재상서』)에 비하면 매우 상식적이고 익히 알려진 선에서만 유교가 인용되고 해석되고 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제주도의 종교적 풍습에 대한 비판에서도 ‘제주도의 종교적 풍습은 곧 배격되어 마땅한 미신적 풍습’이라는 이분법적인 전제를 가지고 비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러한 오래된 토착 종교의 풍습은 결코 단 기간에 해소될 수도, 단 기간에 복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 신부의 과한 전교의 열정이 심한 갈등과 반발을 가져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주민란의 한 가지 요인이 된 것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신영약』은 사료로서의 가치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객관적이고 엄

정한 평가를 해야 하는 문서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초기 교회사의 사료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반면교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수신영약』이라는 문서가 유교와 기독교간의 대화의 가능성, 전통적인 종교적 풍습과 복음 간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을 때 『수신영약』의 가치가 당대의 역사와 종교적 풍습을 알려주는 사료로서의 과거적 가치와 더불어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한국적 문화신학의 바른 틀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Bae, Yo-Han 배요한. “Yugyowa gidogyoeui mannam-Yi Byeokui 『Seonggyo yoji』reul jung-simeuro-”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 [An Encounter between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Focusing on Yi Byeok's 『Seonggyo yoji』.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장신논단』 41 (2011), 393-415.
- _____. “Yugyojeok ingan ihae daehan sinhakjeok gochal” 유교적 인간이해에 대한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Study of the View of Human being in Confucianism: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of Theological Argument on the Substantial Potentiality of Human being in Confucianism. *Mission and Theology* 『선교와 신학』 25 (2010), 199-233.
- _____. “Joseon hugi cheonjugyo suyonggwajeonge iseoseo tochakhwaeui nanjaedeule gwanhan sogo”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과정에 있어서의 토착화의 난제들에 관한 소고 [A Study of Some Indigenous Issues of Roman Catholic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Relation to Joseon Jujahak Tradition-]. M. Div. Thesis,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1995.
- _____. *Sinhakjaga pureosseun yugyo iyagi*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by A Christian Theologian]. Seoul: IVP Press, 2014.
- Bang, Sang-Geun 방상근. “Susin yeongyak Haeje,” 『수신영약』해제. [Susin yeongyak Revocation]. *The Study o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교회사연구』 20 (2003).
- Hahn, In-su 한인수. *Jejuseongyobaeknyonsa* 제주선교백년사 [History of Christian Church in Jeju]. Seoul: Pietas Publishing House. 2009.
- Jeju Seongyo Baekjunyon Ginyeomsaeb Chujinhoe Pyon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 편. *Jeju chunjugyobeo baeknyonsa*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One Hundred Years History of Roman Catholic Church in Jeju]. Jeju: The Jeju Diocese in Roman Catholic. 2001.
- Jeon, Kyoung-Su 전경수. *Tamra-Jejuui Munhwainryuhak*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The Cultural Anthropology of Tamra and Jeju]. Seoul: Publishing Company Minsokwon. 2010.
- Jo, Kwang 조광. *Josunwhoki sahoewa chunjugyo*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The Joseon Dynasty Society and Roman Catholicism]. Seoul: Kyeongin Publishing. 2010.
- _____. *Josunwhoki chunjugyosa yeonguwul gicho*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의 기초

- [Four Studi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Catholic foundation]. Seoul: Kyeongin Publishing, 2010.
- Keum, Jang-Tae 금장태. *Hanguk yugyowa tajonggyo* 한국 유교와 타종교 [Korea Confucianism and the other Religion]. Seoul: Bakmunsu, 2010.
- Park, Chan-Shik 박찬식. *Hanguk geundae chunjugyohoewa hyangchonsahoe-'gyoan' yeongu*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教案’ 연구- [Korea Modern Roman Catholic Church and a Rural Community Society]. Seoul: The History of Korea Christian Church Laboratory Foundation, 2007.
- Park, Il-Yeong 박일영. “Guhanmal tochakjonggyowa katolikeui mannam” 구한말 토착종교와 가톨릭의 만남 [The encounter of aboriginality Religion and Roman Catholic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Pyeonghwasinmun* 『평화신문』, 737 (2003).
- Park, Yong-Gyu 박용규. *Jeju gidokgyohoesa* 제주 기독교회사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Jeju]. Seoul: Life Book, 2008.
- Yi, Seong-Bae 이성배. *Yugyowa Geurisdogyo* 『유교와 그리스도교』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Waegwan: Bundo chulpansa, 1985.
- Yu, Yo-Han 유요한. “Jeju tochakjonggyowa weraejonggyowui chungdolgwa jilseo hyeongseong gwajeongwoe gwanhan yeongu: gaejongjuwui bigyo jeonryakeul jungsimeuro” 제주 토착종교와 외래종교의 충돌과 질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개종주의(Proselytism) 비교 전략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Formation of Clash and Order of the Aboriginality Religion and The Foreign Religion in Jeju: On the View of the Comparison Strategy in Proselytism]. *The Religion and Cultural* 『종교와 문화』 22 (2012).

< Abstract >

A Study of *Susin yeongyak*: On the View of the Encounter between Roman Catholicism and the Aboriginal Religion in Jeju Island

BAE Yo Han (Th. D.)

Senior Pastor
Philosophy and Theology
Shin-Il Presbyterian Church
South Korea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oman Catholicism and the aboriginal religious customs in Jeju Island found in the book *Susinyeongyak* (『修身靈藥』, 1900), by Augustine Kim Won-yeong (金元永, 1869-1936). Augustine Kim Won-yeong was the only Korean among the missionaries sent to Jeju from 1899 to 1901; this time period was the beginning of Church history in Jeju island.

In his book, he performed two different deeds: First, he made the Christian doctrine available to many of the Jeju citizens by defending key doctrines of Roman Catholicism by comparing it with Confucianism, which was the mainline religious teaching of the time. Second, he criticized and judged that the aboriginal religion and folk-belief among Jeju's citizens wear the main obstacle against the Catholic mission. In these ways, he tried to insist that Catholic teaching is the only path to the truth and condemned folk-belief in Jeju as a hindrance for the propagation of Roman Catholicism. As the result of such judgement of the book and his teachings as a pastor, his book indirectly influenced a large representative Anti-Christian Movement, the so-called *Jeju minran* (*sinchuk-gyoan*, 辛丑教案, 1901). Therefore, despite the fact that *Susinyeongyak* has some prejudices against the folk-belief in Jeju,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book can not be ignored for it shows the first stage of the Roman Catholicism in Jeju island.

Although the problem happened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go, there is still a significant theological question that occurs to us to this day: what is the sound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boriginal religions and Christian teachings in Korea?

Key Words *

Susin yeongyak [A Spiritual Remedy for Human Body],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Korean Theology, Aboriginality Religion and Christianity, Confucianism and Roman Catholic